

2023년 4/4분기

창원지역 기업경기전망조사

2023. 9

창원상공회의소

## 1. 조사목적

- 창원지역 기업경기전망조사(Business Survey Index: BSI)는 창원지역 소재 제조기업의 체감 경기 수준에 대한 이해와 창원지역 기업들이 처한 경영환경을 조사하여 창원지역의 기업경기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지역기업에는 경영상의 의사결정 참고자료로, 기업지원 기관·단체에는 시의적절한 지원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함

## 2. 조사방법 및 기간

-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기간 : 2023. 8. 30. ~ 9. 11. (9일간)
- 분석대상 : 145개 응답업체

(단위 : 매, %)

	규모별		수출, 내수 비중			
	대·중견기업	중소기업	수출위주 기업 (수출 50% 이상)	내수위주 기업 (수출 50% 미만)		
매수	40	105	36	109		
비중	27.6%	72.4%	24.8%	75.2%		
업종별(복수업종 포함)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기계·장비	철강·금속	기타 운송장비	기타
매수	28	25	40	22	10	23
비중	18.9%	16.9%	27.0%	14.9%	6.8%	15.5%

### 3. 조사내용

- 제조업 체감경기 현 수준 및 향후 전망
- 체감실적 및 전망, 매출액, 영업이익, 자금사정
- 기업경영환경 요인

### 4. 분석방법

- 기업경기지수(Business Survey Index ; BSI)는 전분기 실적과 향후 전망에 대한 응답업체 수를 바탕으로 아래 공식으로 지수화한 것임

$$\text{BSI} = \frac{(\text{긍정적인 응답업체수} - \text{부정적인 응답업체수})}{\text{전체 응답업체수}} \times 100 + 100$$

- BSI 100 : 체감경기 '호전'과 '악화'로 응답한 업체수가 같음
- BSI 100 이상 : 체감경기 '호전'으로 응답한 업체가 많음
- BSI 100 미만 : 체감경기 '악화'로 응답한 업체가 많다는 것을 의미함

## II

## 요약

### ● 2023년 4분기 전망BSI '84.8', 3분기 실적BSI '75.9'

- 자동차, 조선, 철도, 항공 등 운송장비 제조업, 체감경기 호조 전망
  - 자동차, 역대 최대 수출실적 기록, 국내 주요 완성차업체의 무분규 협상완료
  - 조선·철도·항공, 국내외 잇단 수주와 해당산업에 대한 정부지원책 기대감
- 운송장비 제조업을 제외한 타 산업의 경우 중국경기 둔화, 엔화약세 지속,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수익성 악화요인과 소비심리, 투자심리 둔화 등 내수경기 악화요인으로 인해 4분기 경기 부정적 전망
  - 철강·금속, 국제원자재가격과 환율 동반 상승 기조, 엔저에 따른 일본산 철강제품 수입증가
  - 전기·전자, 국내외 소비심리 둔화와 계절적 비수기 지속
- 항목별 전망BSI, 매출액(97.9), 설비투자(92.4), 영업이익(82.7), 자금사정(80.7)
- 업종별 전망BSI, 기타운송장비(160.0), 자동차·부품(128.0), 기계장비(80.0), 철강·금속(68.2), 전기전자(67.9)

### ● 응답업체 61.4%, '올해 목표치 달성하지 못할 것'

내수판매 부진에 가장 많은 영향 받아...

#### [한해 목표치 달성 전망]

- 목표수준 초과달성(8.3%), 목표수준 달성(30.3%), 목표수준 미달(61.4%)

#### [목표치 달성 여부에 영향 미친 요인]

- 내수판매 부진(30.9%), 수출감소(25.4%), 고금리 상황(15.5%), 환율·유가변동성 심화(13.8%), 원부자재 수급 차질(13.3%) 등

### Ⅲ

## 2023년 4/4분기 기업경기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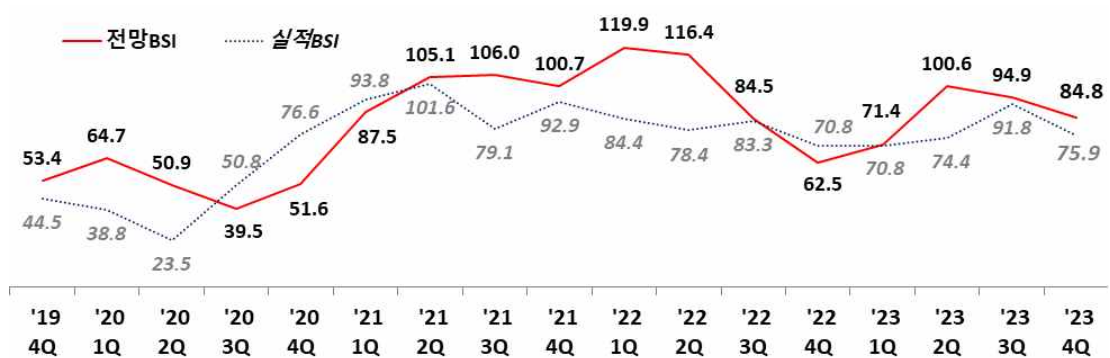
### 1. 창원 제조업 경기 전망 및 실적 BSI

○ 2023년 4분기 창원지역 제조업 경기전망조사 결과, 전망BSI(기업경기실사 지수)가 '84.8'으로 조사되어, 기준치(100)를 하회하며 2개 분기 연속 기준치를 하회했음.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중국경기 둔화와 엔화 약세로 인한 대외여건 악화,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더딘 수익성 회복, 소비심리, 투자심리 둔화 등 내수경기 악화 등이 4분기 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됨.

○ 2023년 3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한 실적BSI도 기준치를 밑돈 '75.9'로 조사되었음.

창원지역 제조업 전망 및 실적 체감경기(BSI)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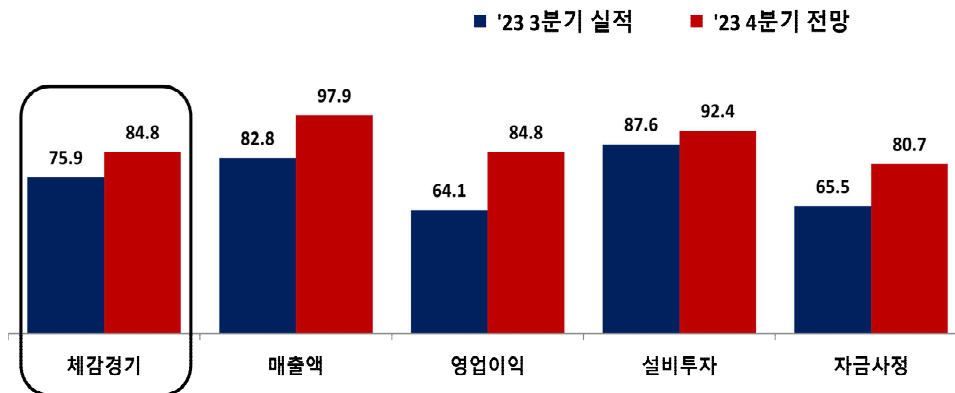


※ 체감경기 지수는 절대적인 실적이 아닌, 앞선 분기와 비교해 상대적 체감정도를 의미하므로 지수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 2. 항목별 경기 전망 및 실적 BSI

- 2023년 4분기 항목별 전망BSI는 매출액(97.9), 설비투자(92.4), 영업이익(84.8), 자금사정(80.7) 등 전 부문에서 기준치를 하회했음.
- 매출액 부문에 있어서 약보합을 나타냈으나, 기업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공급망 불안과 수입 원자재 가격 및 환율 상승 기조가 유지되면서 영업이익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이는 다시 기업의 자금사정을 악화로 이어지며, 설비투자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항목별 실적 및 전망 BSI



## 3. 업종별 경기 전망 및 실적 B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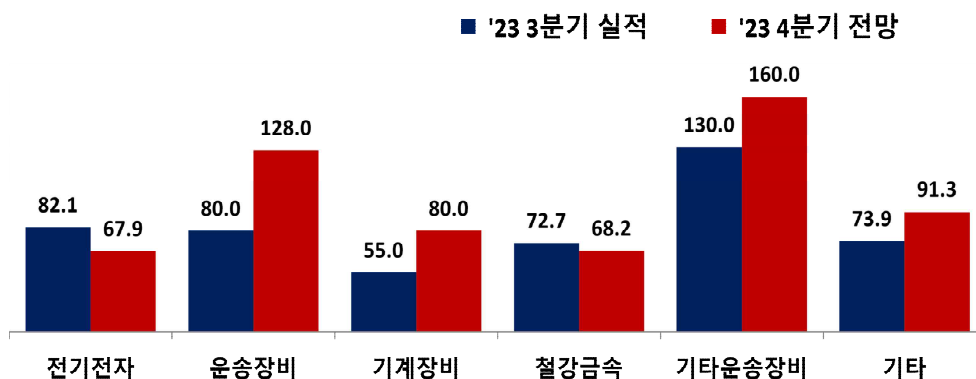
- 2023년 4분기 경기를 가장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업종은 기타운송장비제조업(160.0)과 자동차·부품제조업(128.0)임. 반면 기계장비제조업(80.0)과 철강금속제조업(68.2), 전기전자제조업(67.9)은 기준치를 밑돌며 부정적 전망을 내놓고 있음.
- 기타운송장비제조업의 경우 실적과 전망치가 모두 기준치를 크게 상회했음. 기타운송장비제조업을 이루는 주요 업종인 조선산업과 항공산업, 철

도장비의 잇단 국내외수주 실적과 해당 산업에 대한 정부지원책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됨. 특히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어온 조선업의 업황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고, 방위산업 수출과 함께 수주량이 확보된 항공제조업과 국내 입찰에 성공한 철도제조업이 잇달아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임.

○ 자동차와 그 부품 업종의 경우 지역 내 완성차 업체의 수출 호조와 국내 완성차의 생산량 증대가 함께 이루어지며 경기 호조를 전망하고 있음. 특히 지역 내 완성차 업체의 경우 올해 8월까지의 수출실적(15억 4천만 불)만으로도 역대 최고실적을 기록했던 2012년(10억 6천만 불)을 상회하는 등 수출호조를 보이고 있고, 국내 주요 완성차 업체의 무분규 협상완료도 연말 자동차 부품 기업들의 체감경기를 긍정적으로 내다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반면, 수입 비중이 높은 철강금속제품제조업의 경우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율 상승기조가 겹쳐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엔저영향에 따라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일본산 철강제품의 수입증가가 지역 내 철강금속제조업의 체감경기를 끌어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임.  
전기전자제조업의 경우 국내외 소비심리 악화와 계절적 비수기를 겪고 있어 2023년 4분기에도 부정적 전망을 이어가고 있음.

업종별 실적 및 전망 BSI



#### 4. 올해 목표치 달성 여부와 요인

○ 올해 계획한 영업이익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업체의 61.4%가 ‘목표수준에 미달할 것’으로 답했고, 30.3%는 ‘목표 수준 달성할 것’, 8.3%는 ‘목표수준을 초과 달성할 것’이라 전망했음.

○ 올해 목표치 달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요인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업체의 30.9%가 ‘내수판매 부진’을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수출 감소’ 25.4%, ‘고금리 상황’ 15.5%, ‘환율·유가 변동성 심화’ 13.8%, ‘원부자재 수급 차질’ 13.3% 순으로 답했음.

올해 목표치 달성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원자재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 등의 생산비 증가(채산성 악화) 보다 내수 및 수출시장 자체의 수요 감소가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음.

상반기 실적(영업이익) 목표치 달성 여부와 국내외 요인

